

## 새로운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 블랙을 초월하는 영원한 움직임

새로운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가 마침내 정교한 디자인과 특허 받은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 그리고 동일한 소재의 케이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스포티한 매력과 기품을 동시에 탑재하여 생동감 넘치는 선레이 마감 블루 컬러 다이얼을 경험해보세요. 세라믹부터 나토(NATO), 세일클로스까지 다양한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는 바티스카프 라인에 강인함, 컬러, 역동성을 더해줍니다.

1953년, 최초의 진정한 다이버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전문 다이버들은 이 시계를 실제 다이빙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도시형 버전인 바티스카프는 1956년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해저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바티스카프 라인은 직경이 더 작은 또 다른 형태로 선보였습니다. 오늘날, 바티스카프 라인은 매혹적인 컬러와 세라믹이 결합된 역동적인 모델을 선보이며 고유의 디자인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눈길을 사로잡는 그라데이션 다이얼

우아한 블루 컬러가 블랙 세라믹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문페이스가 장착된 새로운 컴플리트 캘린더의 다이얼을 장식합니다. 빛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미묘한 그라데이션이 선레이 마감과 어우러지며 다이얼에 생동감을 선사합니다. 다이얼에 깊이감을 주는 동시에 뛰어난 광채를 더하는 세련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을 보유한 착용자와 마찬가지로 이 모델도 고유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이얼과 블랙 세라믹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의 강렬한 대비가 돋보이며, 독특한 마감에 반사된 빛이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탁월한 저항력

최첨단 세라믹 기술은 바티스카프 라인을 새로운 차원의 기능으로 끌어올립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닌 세라믹은 도시적인 감성을 지닌 이 라인에 이상적인 소재입니다. 또한 최초로 하이테크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도입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크래치에 강하며 저자극성인 세라믹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거의 5배 더 단단하지만 25% 더 가볍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라믹은 마감에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1400°C 이상에서 소성할 때 25%의 부피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다이아몬드 공구로 가공하는 새틴 마감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링크에서 버클과 케이스까지 각 부품은 전문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럭셔리 시계의 브레이슬릿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너무 느슨하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착용을 위해 너무 조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링크를 완벽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계산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착용감을 보장하기 위해 각 링크를 세심하게 측정하고 확인합니다. 특히 받은 캠 모양의 핀으로 연결된 링크 시스템을 갖춘 이 브레이슬릿은 뛰어난 저항력과 착용감을 보장합니다. 블랙 컬러의 이 모델은 처음으로 세라믹 케이스(블랙, 43.6mm, 300m 방수)를 장착한 새로운 컴플리트 캘린더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재의 케이스가 장착된 바티스카프 쓰리 핸드 및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모델과도 잘 어울립니다.

6654.P4 칼리버로 구동되는 새로운 바티스카프 캘린더 문페이스는 다이버 위치로서의 블랑팡의 헤리티지를 강조합니다. 회전 베젤과 문페이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과 같이 블랑팡을 특징짓는 파인 위치메이킹 요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이빙과 안전: 회전 베젤

1952년, 당시 블랑팡의 공동 CEO였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는 자신의 위험했던 다이빙 경험을 통해 안전한 수중 시간 측정 장비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해결책은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에 스쿠버 다이빙에 특화된 잠금식 회전 베젤을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단방향 회전 베젤이 사용되어 시계에 안정감을 더하며, 조작 시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딸깍' 소리를 냅니다.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에도 이 베젤이 사용됩니다. 블랑팡이 새롭게 선보이는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블랙 세라믹 베젤에 자리한 인서트는 깊고 강렬한 블랙

다이얼의 톤과 조화를 이룹니다. 블랙 컬러는 눈길을 사로잡는 블루 선레이와 어우러져 깊고 강렬한 색감을 선사하며, 그레이 컬러의 리퀴드메탈(Liquidmetal®)로 표시된 인서트와 대조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도시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베젤은 충격에 매우 강하며, 조작 시 깔끔하고 파워풀한 '딸깍'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 시간의 중심, 문페이스

6654.P4 칼리버로 구동되는 이 타임피스에는 블랑팡 매뉴팩처를 상징하는 컴플리케이션인 문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블랑팡은 1983년 쿼츠 위기 이후 이 컴플리케이션을 재도입하여 기계식 시계가 탁월한 전문 지식의 산물이며 쿼츠가 복잡한 기계식 시계 제작의 창조물을 결코 대체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문페이스 컴플리케이션은 메커니컬 워치메이킹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블랑팡의 문페이스는 6654.P4 칼리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두 개의 배럴을 통해 7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이며, 착용자는 하루 중 언제든지 캘린더 표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상을 방지하는 안전한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 워치메이킹 전통에 따라 앙글라주(anglage), 페를라주(perlage), 콜리마소나주(colimaçonnage) 기법으로 섬세하게 장식된 무브먼트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적용되어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 혁명

21세기 초 워치메이킹 세계에 진정한 혁명을 불러온 실리콘은 시간 측정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실리콘은 변형 없이 탄성을 유지하며 단단하고 가벼우면서도 부식에 매우 강합니다. 특히 자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 시계의 정밀성을 보장하는데 탁월한 소재입니다.

1950년대에는 시계의 밸런스 스프링에 주로 금속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피프피 패덤즈 모델에는 무브먼트를 자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철 소재의 내부 케이스를 탑재했습니다. 오늘날의 피프피 패덤즈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있어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독특한 구조를 감상할 수 있는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메커니즘의 아름다운 마감 디테일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크로노미터 성능을 자랑합니다.

## 블랑팡, 캘린더의 대가

블랑팡 매뉴팩처의 DNA 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캘린더 기능은 블랑팡의 컴플리케이션 제작 노하우를 증명합니다. 1980년대 초 블랑팡이 선보인 컴플리트 캘린더를 시작으로, 다양한 블랑팡 타임피스에 캘린더 인디케이션이 탑재되었습니다. 위클리 캘린더, 날짜 인디케이터, 애뉴얼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를 아우르는 블랑팡의 기술력은 빌레레 이퀘이션 오브 타임과 빌레레 차이니즈 캘린더라는 극도로 복잡한 세계 최초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통해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컬렉션에 탑재된 블랑팡 매뉴팩처의 캘린더 메커니즘은 블랑팡을 캘린더의 대가로 만들었으며, 새로운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는 이러한 유산을 이어가는 타임피스입니다.